

## 문전 본풀이

이번에는 들 적<sup>1)</sup>에도 문전(門前), 날 적<sup>2)</sup>에도 문전(門前), 우리가 들어올 때도 앞이 현관으로 들어오고, 나갈 때도 현관으로 나가고, 계난 현관을 보고 옛날 어른들은 문전(門前)이라고 합니다. 현관이, 계난, 들 적 문전(門前) 날 적 문전(門前). 계난 문전본(門前本)인데.

옛날이라 옛적에, 남선고을은 남선비 생원(生員)이 살고, 여산국에 부인님이 살았으니, 부베간<sup>3)</sup>을 삼안. 아이, 애기사 낳는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낳단 보난, 아들 놈만 일곱 개를 난 거라. 겐 나난, 애기덜 일곱 개 허고, 부베간 허곡 허른 아홉 식구 아니. 아홉 식구 먹영 살젠 허난 무시 거 있어. 가난허고, 서난허고<sup>4)</sup>, 가난공서<sup>5)</sup> 헤노난. 이제 남선비 생원(生員)은 곡철곡첼<sup>6)</sup> 거느령 남박<sup>7)</sup>에 남신<sup>8)</sup>을 팡 그걸 풀양 그날 그날 쓸 받아 당 구명도석(求命圖食)을 헤영 살아가난,

하도 가난허고 허난, 남선비 생원(生員)이 생각을 허기를,

“여산국 부인님아, 경 말앙, 나가 제주도에서 나는 소산지(所產地) 제물을 실령 육지 강 그거 풀양<sup>9)</sup> 쓸 받안, 계난 무곡(貿穀)이나 지어당 우리 식구들 살아가는게 어떻허우파?”

허난.

“어서 걸랑 기영 협서.”

허난. 굴미굴산 노조방산 아야산<sup>10)</sup>에 올란 곧은 냥을 비어단, 풍선을 지은 거라. 풍선, 초석 들안<sup>11)</sup>, 겐 풍선 지어 놓고, 제주서 나는 소산지(所產地) 제물은 뒤 산으로 가민 버섯이여, 초기여. 또 중산층으론 텅유지나 소유지 그런 거. 또 해각<sup>12)</sup>으로 가민 저 소섬, 건미역 장광미역, 그 팡 엇인 거. 그런 것들 헤영 옛날 임금님안티 바쳐난 거난<sup>13)</sup> 그런 걸 헤영 전베독

---

1) 들 적: 들어갈 적.

2) 날 적: 나갈 적.

3) 부베간: 부부간.

4) 서난허고: 서럽고.

5) 가난공서: 가난과 관련된 일.

6) 곡철곡첼: 나무를 파거나 후비어 내는 연모로, 긴 자루가 달려 있으며, 날은 휘어져 있음.

7) 남박: 나무로 만든 바가지

8) 남신: 나무로 만든 신발.

9) 풀양: 팔아서.

10) 굴미굴산 노조방산 아야산: 아주 깊은 산을 뜻함.

11) 들안: 달아서.

12) 해각: 해촌.

선<sup>14</sup>) 잔뜩 실런 나가젠 허난, 여산국 부인 허는 말이,

“아이고, 생원(生員)님아, 경 허당 저 시퍼렁헌 바당을 건너가곡, 건너 오명 만약에 사름 일은 몰란, 당신네 안오민 이 노릇을 어떻허민 좋읍네 까? 어떻허영 소문 기별은 들읍네까?”

허난

“경 말앙, 나가 나강 삼 년이 돼어도 아니 돌아오건 춤썰<sup>15</sup>) 혼 제 허 영, 이제 사발에, 은사발에 이제 쓸 농곡 허영 허곡, 삼동낭 용얼레기<sup>16</sup>)를 그것에 묶영 경 허영 바당에 드리쳐 보민 내가 살앗이민 아무것도 아니 올라오고, 만약 죽엇이민 삼동낭 용얼레기에 나 머리턱<sup>17</sup>)이라도 하나 올라와겘랑 바당에서 죽엇구나 생각을 허렌.”

경 곶아된<sup>18</sup>) 돛 돌아왔언<sup>19</sup>) 벤 나간 거 아니. 겐 나간 우리 제주도 바당을 넘어사젠 허난, 이 바당 저 바당을 당허난 그자 모진 광풍이 앓아당 불고 막 비브름<sup>20</sup>) 치고, 하늘이 그자 남숫두쟁이<sup>21</sup>)만이 데싸젓당 갈라젓당 헤가난 남선비 생원(生員)은 앓안,

“더 바랄딘 엇고 멩천(明天)ᄃ쁜 하늘님아, 요왕님아 선왕님아, 날 살려 줘서.”

경 험 축원허멍 허단 보난, 브름에 치데견<sup>22</sup>) 성창머리<sup>23</sup>) 붙인딘 보난,

“여긴 어딘고?”

허영 강 보난, 오동나라 오동ᄃ을이라. 겐 그디 강 성창머리 내런, 벤 묶어두언. 이젠 베고프고 시장허난 주모 집이 간, 주모 할망신디 간, 밥, 옛날이난 국밥 정도 사 먹어왔언. 보난, 그 장시허는<sup>24</sup>) 사람이 노일저데귀 일 뜰이라.

게난, 그디서 그 베에 식경간 거 다 풀아사 쓸로 바짱 올건디, 이 날 저 날 험 살단보난 노일저데귀일 뜰 호탕에 들언 전베독선 식거간 거 문딱 풀안. 그디 서 다 먹어분 거 아니. 게난, 이젠 갈 데 올 데도 엇고 허난,

13) 바찌난 거난: 바친 것이어서

14) 전베독선: 한배 가득.

15) 춤썰: 명주썰.

16) 삼동낭 용얼레기: 상동나무로 만든 빗.

17) 머리턱: 머리털. 머리카락.

18) 경 곶아된: 그렇게 말해두고.

19) 돌아왔언: 달고서.

20) 비브름: 비바람.

21) 남숫두쟁이: 나무로 만든 솔뚜껑.

22) 치데견: 치올려서.

23) 성창머리: 배를 매는 곳.

24) 장시허는: 장사하는.

노일저데귀일 뜯히고 부베간이 뉘 거라. 경 험 부베간이 뉘영 살아부난,  
그거 폰<sup>25)</sup> 돈은 문딱 두어 바둑 두어 장기 두명허연 노일저데귀일 뜯 호  
탕에 빠지난 다 엇어져 불고, 먹을 거 엇이난 체죽<sup>26)</sup>만 부루 썩 줘부난,  
그거 먹단 보난 오꽃<sup>27)</sup> 안명천지(眼盲天地) 눈 어둡어분 거라. 겐 눈 어둡  
어부난

이젠 고향에선 아들들은 커가난,  
“어머님아, 우리 아버지 어디 갔우꽈?<sup>28)</sup>”

허난.

“느네 아버지 느네들 먹영 살리젠이 무곡치레<sup>29)</sup> 간 아니오랴저.”

허난.

“아버지 갈 때 무시거 곱은<sup>30)</sup> 말은 엇우꽈?”

허난.

“이만이만 허영 삼동냥 용얼레기 디물리와 보렌<sup>31)</sup> 곱아라.”

허난.

“느네들 경 말앙이, 초신<sup>32)</sup>을 혼 사름이 하나씩 날 삼아 도라.”

허연. 이젠 초신을 하나씩 삼안 어머님 안네난, 으섯 벤<sup>33)</sup> 등에 지고,  
혼 베<sup>34)</sup>는 밭에 신고, 겐 성창머리를, 밤인 뉘민 춘 느룻<sup>35)</sup>에 낮인 뉘민  
벧 맞이명 이젠 춤썰 혼 제에 삼동냥 용얼레기 헤영 바당더레 데끼명

“설운 낭군님아, 살앗건 혼저 오고, 죽엇건 머리턱이라도 하나 올라 읍  
셔.”

허연 데껴두연<sup>36)</sup> 그 신발이 다 끊어지게 성창머릴 바라들고<sup>37)</sup> 바라나단  
마지막 날은 건전보난 머리턱이랑마랑 아무 것도 엇인 거라. 엇이난 아고  
살앗구나, 아들들 일곱 성제가

“어머니, 경 말앙. 어머니가 베를 우리가 짓어 노커메<sup>38)</sup> 그 베 탕 혼

---

25) 폰: 판.

26) 체죽: 겨죽.

27) 오꽃: 곧. 즉시.

28) 갔우꽈?: 갔습니까?

29) 무곡치레: 貿穀하러.

30) 곱은: 말한.

31) 디물리와 보렌: 넣어 보라고.

32) 초신: 짚신.

33) 으섯 벤: 여섯 걸레는.

34) 혼 베: 한 걸레는.

35) 춘 느룻: 가을이나 겨울철, 맑고 바람 없는 밤이나 새벽 때에 춥게 느껴지는 찬 기운.

36) 데껴두연: 던져두어서.

37) 바라들고: 걸어 다니고.

38) 짓어 노커메: 지어 놓을 테니.

번 강은에게 우리 아바질 좇앙 읍서.”

허난.

“경 허렌.”

허연. 겐 아들들 일곱 성제가 굴미굴산 노조방산 아야산 짚은 곳디 간  
곧은 낭 비어단 베를 짓으난 또 풍선을 지어논거주. 경 헨 지영

“어머님아, 아바님 잘 좇앙 읍서.”

허난. 또 여산국 부인님도 베 탕 가젠 허난, 꼭 그 자리에 가난 이 바당  
광 저 바당에 가난 모진 광풍이 불언 막 데싸젓닥 갈라젓닥<sup>39)</sup>

“아이고, 멩천(明天)ㄱ쁜 하늘님아, 날 살려 줍서. 요왕님아, 선왕님아,  
살려 줍센.”

허연. 벤 앓앙 성창더레 치데기난<sup>40)</sup>, 이젠 닷줄은 메여두고 내련, 성창  
머릴,

“이디, 어디나 오라젓인고?”

허연. 성창머릴 바라난 가노렌 허난, 지장밭(黍田)디 새 드리는<sup>41)</sup> 애기씨  
들이, 지네 놀레주게, 지네 놀레로<sup>42)</sup> 부르멍

“아이고, 요 새 저 새, 밥주리<sup>43)</sup> 옥은<sup>44)</sup> 새야, 너미 경 옥은 척 허지 말  
라. 요 남선비 옥은 간에도 아이, 못인<sup>45)</sup> 그물에 들언, 노일저데 호탕에  
빠전 전베독선 다 폴아먹언 체죽만 먹단 보난 안명천지(眼盲天地) 뉘엿젠.  
주어 저 새!”

허멍. 지장밭디 새 들을 드렸어<sup>46)</sup>. 그걸 놀레로 부르멍. 게난 그뎨 여산  
국 부인님이 허는 말이, 턱허게 산

“야, 설운 애기덜아, 니네들 아까 곶은 말 다시 한번 곶아 보라.”

허난

“우리 아무거엔도 아니 곶앗우다<sup>47)</sup>.”

허난

“금방 곶은 말 곶아보라. 나이 느네 뎡기 ㄱ슴<sup>48)</sup> 주마.”

39) 데싸젓닥 갈라젓닥: 뒤엎어지다가 바로 되고.

40) 치데기난: 치올리니.

41) 새 드리는: 새 쫓는.

42) 놀레로: 노래로.

43) 밥주리: 잠자리.

44) 옥은: 역은.

45) 못인: 묶은(結).

46) 드렸어: 쫓고 있어.

47) 곶앗우다: 말하였습니다.

48) 뎡기 ㄱ슴: 뎡기를 만드는 천, 옷감.

허난. 곤는 건 보난 그 말이라. 안명천지(眼盲天地) 뉘엇젠 허난

“그디 가젠 허민 어디 가민 가느니?”

허난

“요 제 넘고 저 제 넘곡 행 강 봅서. 비주리 초막<sup>49)</sup>에서양 체죽단지<sup>50)</sup> 윽뎡이<sup>51)</sup>에 찬 개 다울리멍 앓앗우다.”

아닌게 아니라, 요 제 넘고 저 제 넘영 가단 보난, 거적문에 웨 돌체기<sup>52)</sup> 하나 돌아 놓고. 아이고, 난간에 앓안 체죽단진 윽뎡이에 창 앓곡, 눈은 안명천지 뉘여부난 막뎡이<sup>53)</sup> 들런, 그 개 왕 먹어불카부덴게<sup>54)</sup>, 체죽 먹어불카부덴 개 다울리멍<sup>55)</sup> 앓아서. 겐 여산국 부인님이 들어사멍

“아이고, 넘어가는 사름이우다만은, 저 집이나 흐꿈만<sup>56)</sup> 빌립서.”

허난에

“아이고, 우리 집을 봅서. 어느거 빌리곡데곡, 어느거 주인 앓고, 어느거 나그네 앓을디파?”

게난

“나도양, 고향 산천가믄 집도 잇곡 절도 잇곡, 다 잇우다. 경 허주만은 이거 웨방 나와부난에, 경 허건양 저 솟이라도 흥번 빌립서. 나 밥이나 흥때, 베고판 밥 흥때만 행 먹영가쿠다.”

허난.

“그결랑 경 험서.”

허난. 정제에<sup>57)</sup> 간 솟두깁인<sup>58)</sup> 을안 보난, 하도 체죽만 쉼 먹어나난 체죽으로 ㄱ득은<sup>59)</sup> 거라. 게난 앞뵈디 놀려들언 삼수세기<sup>60)</sup> 허여단 박박허게, 솟을 이젠 흥불 두불 연시번 서너번을 막 뎡뵈<sup>61)</sup> 씻어두언. 시양삭삭<sup>62)</sup> ㄱ은 쓸, 즈뵈이 진 ㄱ은 쓸 초불 두불 연 시번을 씻언 솟디 놓안, 불낙시견<sup>63)</sup> 밥 허연 반찬 즐리고 경 허연, 이젠 상에 들런 남선비신디 들

49) 비주리 초막: 아주 작은 초막.

50) 체죽 단지: 겨죽 단지.

51) 윽뎡이: 옆구리

52) 웨 돌체기: 외 돌쩌귀.

53) 막뎡이: 막대기.

54) 먹어불카 부덴게: 먹어 버릴까봐.

55) 다울리멍: 내쫓으면서.

56) 흐꿈만: 조금만.

57) 정제에: 부엌에.

58) 솟두깁인: 솟뚜깁이는.

59) ㄱ득은: 가득한.

60) 삼수세기: 한삼 덩굴.

61) 뎡뵈: 다섯 번.

62) 시양삭삭: 몹시 흰.

령 간 거라.

“주인님아, 주인님아, 이 밥이나 자셔 밥서.”

허난에

“아이고, 나는 아이 먹쿠다.”

“아이고, 문전 므른 공서가 잇이명 주인 므른 나그네가 잇입네까. 게도 주인이 먹어봐사 나그네도 먹을 거 아니짜.”

허난.

“경 험서.”

허연. 혼 순고락을 폭허게 떼, 거련<sup>64)</sup> 입더레 노난, 아이고, 눈물은 다름 다름 알더레 털어진 막 밥 입에 물어둬서<sup>65)</sup> 운거라. 게난 여산국 부인님 허는 말이,

“주인님아, 어떻 허난 경 울었우까?”

“아이고, 나도양 옛날엔 이런 밥도 먹어나고양 이런 반찬도 먹어났우다.”

울명도, 경 곱으난,

“계건 옛말이나 곱아밥서<sup>66)</sup>.”

“아이, 옛말 모름네다.”

“본말이나 곱아밥서.”

“본말도 모름네다.”

“계건, 살아 온 말이나 곱아밥서.”

허난. 영 곤는 거 보난, 난 남선고을 남선비고양, 우리 안부인은 여산국 부인이고 고향 산천서 애긴 낳는게 아들 일곱 성제 나부난, 먹을 거 엇영 무곡(貿穀)지레 오랏단 노일저데귀일이 뜰 호탕에 빠지언 나 신세가 영 뒤엇우다. “

허난. 그땐 여산국 부인님이 놀러들언 손을 폭허게 심언 둘이가 막 우는 거라.

“나가 여선국이우다. 나, 당신님 좃안 물 넘으명 산 넘으명 이까지<sup>67)</sup> 오랏우다.”

젠 막 우노렌 허난, 노일저데귀일이 뜰은 이녁은<sup>68)</sup> 하루 간, 때 삼시 어

63) 불낙시건: 불을 놓아서.

64) 거련: 거러서.

65) 물어둬서: 입에 문 채로.

66) 곱아밥서: 말해보세요.

67) 이까지: 여기까지.

68) 이녁은: 자기는.

디 큰일 허는 집이 간 뽕그렉이<sup>69)</sup> 얻어먹고, 남선비 나신<sup>70)</sup> 네무런<sup>71)</sup> 그  
체 혼쭈 빌언 치멧각<sup>72)</sup>에 놓안 흥글흥글 허멍 집이 오는 거주게. 겐 오단  
보난 물론 여자허고 손들 심영 막 울멍덜 손 심영 앓은 거 아니. 들어오  
멍

“이, 개 그쁜 놈아, 쉼 그쁜 놈아, 질레에<sup>73)</sup> 넘어가는 질칸나이 년덜<sup>74)</sup>  
심어 놓아 히약가십<sup>75)</sup> 뭐일러나. 날랑 더운 뚝 흘리멍 너놈 먹을 거 강  
빌레 뎡기당보건 너놈은 집이 앓앙 허는 것이.”

막 욱을 허는 거라. 게난 남선비 허는 말이,

“아이고, 경 현게 아니고, 나 고향산천에서 큰부인이 나 좇앙 오랏  
젠.”

허난. 아이고, 그땐 엇인 언강<sup>76)</sup>에

“아이고, 경 헛수까. 성님아, 성님이우파? 성님인 거 나 몰란양 나 잘못  
헤젓우다게.”

허멍 막 엇인 영강 헨. 이젠 막 헤된.

“아시야, 이런 남편 모성 살젠 허난 고생 헤엇저. 고생 하영 헤엇저.  
저 정지에 간 보라. 나 밥 헤여된 거렁 남은 거 잇이메<sup>77)</sup> 그거 밥 먹으  
라.”

간 보난, 헤영헌<sup>78)</sup> 밥 헹 왓이난,

‘아이고, 고향에선 영 잘사는 사름이로구나.’

밥은 먹으멍 벌써 음흥헌 맛음이 난거라.

‘저 년을 죽여불어사 나가 고향에 강 안구들<sup>79)</sup>도 나 츠지허고, 고향간  
도 나 츠지 헤사 영 헤영헌 밥을 먹을로구나.’

허연. 이젠 밥 뽕그렉이 먹어 앓언 완

“아이고, 성님아, 읍서 이디양, 이 고을에 막 좋은 주천강 연혜못이 잇  
우다. 그디 강 우리 몸모욕<sup>80)</sup>이나 헹 오게마썸.”

---

69) 뽕그렉이: 배가 불룩하게.

70) 나신: 뉘은.

71) 네무런: 함부로 대해서.

72) 치멧각: 치맛자락.

73) 질레에: 길에.

74) 질칸나이 년덜: 길 넘어가는 여자들.

75) 히약가십: 농(弄)을 곁어서 놀리는

76) 언강: 아양.

77) 잇이메: 있으니.

78) 헤영헌: 하얀.

79) 안구들: 안방.

80) 몸 모욕: 몸 목욕.

허난,

“성님도 오젠 허난 쫘물<sup>81)</sup> 몸드레 지쳐실거, 나도 오늘 강 일 허젠 허  
난양 막 더운 땀 흘려나난 강 우리 모욕행 오게마씀.”

허난,

“경 허렌.”

허연. 몸모욕허렌 간 옷들은 벗언 즈근즈근 돌 우터레<sup>82)</sup> 지쳐된, 물은  
참방참방 모욕 허노렌 허난 노일저데귀일이 딸이 왕

“성님, 영 험서. 등에 때나 밀어 안네저.”

허난,

“아시, 영허심 나가 밀어 주커라.”

허난

“아이고, 성님아, 우이로 내리는 물이 발등더레 진넙께게<sup>83)</sup> 알더레 느  
리곡<sup>84)</sup>, 게난, 나가 먼저 성님 등을 밀어 안네걸랑<sup>85)</sup> 성님이랑 날 밀어 줘  
서.”

허난. 폭 고정 들언

“아시, 경 허심.”

허연 돌아 앓은 게 흔 번 두 번 미는체 허당<sup>86)</sup> 세 번쩨 자락허게 밀리  
멍 물더레 빠져분거라 그냥. 게난, 여선국 부인은 올라오젠 영 광들 짚어  
가민 떼여불고, 올라오젠 헤가민 떼여불고 헌게 물에서 히단히단 지치난  
죽으멍

“너 이년아, 너년은 날 죽염다만은 우리 애기덜 일곱 성제 잇이난 너년  
그냥 내불지 안힐 것이다.”

경 곶아뵈<sup>87)</sup> 물더레 소로록 곶라앗아<sup>88)</sup> 분거라. 겐 곶라앗아 부난, 이  
젠, 지 옷은 내불어뵈 아이고, 여선국 부인 강 벗어 놓은 옷 문딱 즈근즈  
근 입영 집으로 흥글흥글 오난 확 거짓말을 헌거주.

“아이고, 노일저데귀일이 딸양, 행실이 궤썸허영 나 죽여뵈 오랏수  
다.”

---

81) 쫘물: 잔물.

82) 우터레: 위로

83) 진넙께게: 떨어집니다.:

84) 느리곡: 내리고.

85) 안네걸랑: 안내면.

86) 미는 체 허당: 미는 척 하다가.

87) 곶아 뵈: 말해두고.

88) 곶라앗아: 가라앉아.



원, 남선빈 목소리도 몰라시카 원.

“그년 잘 죽였어. 나 그년으로 허연이<sup>89)</sup> 나 신세가 다 동나고 나 빙신  
까지<sup>90)</sup> 웨영 눈까지 어둑어서.”

“아이고, 글읍서<sup>91)</sup>. 혼자 우리 집이 가게. 우리 아들덜 기다리는 집이  
가게.”

경 헨 여산국 부인님 탕 간 메여 놔둔 베 잇이난,

그거 탄. 이제 고향 산천더레 오는 거 아니. 계난 아덜덜 일곱 성제는  
메날<sup>92)</sup> 뱃머리에 상 이 날이나 우리 아버지가 오랏인가, 저 날이나 오랏  
인가, 메날 기다리단 아, 흐를 날은 먼 바당더레 바레난, 가마귀 좃늘게  
만씩<sup>93)</sup> 가뭏가뭏 현 게 무시거 봐져. 겐 지네들 일곱 성제들 손그뭏<sup>94)</sup> 들  
영 짓은 베<sup>95)</sup>난 탁 알앗주게. 경 허연 증금증금 그 베가 오는 건 보난 지  
네가 짓은 베라. 막둥이, 일곱차 녹디생이 곤는 말이

“형님네야, 아버지 어머님, 오는디 혼 번 드리<sup>96)</sup>나 놓아보게마썸.”

허난.

“경 허렌.”

허연. 젤 큰 아덜은 갓을 벗언 드릴 놓고,

“난, 갓 벗영 드리 놓으키여.”

둘척 성은 망긴 벗언 드릴 놓고, 세척 성은 두루막 벗언 드릴 놓고, 넷  
차는 저고리 벗언 드리 놓고, 다섯차는 이제 행경 벗어 드리 놓고, 으섯차  
는 다님 벗어 드리 놓고, 아, 일곱차 허는 말은,

“성님네들은 드릴 잘 놓았우다만은, 이네 몸은 칼선드리<sup>97)</sup>웨다.”

허난, 형님네 허는 말은 깜짝 놀레언

“아이고, 나 동싱아, 어떻허난 아버지 어머님 오는디 칼선드리가 무시  
것고? 아시야.”

허난

“형님네야, 저디 오는 거, 나 생각인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적실  
헌<sup>98)</sup>거 닭수다만은, 어머님은 우리 어머님이 아닌 것 닭수다.”

---

89) 허연이: 인해서.

90) 빙신 까지: 병신까지.

91) 글읍서: 갑시다.

92) 메날: 매일.

93) 좃늘게 만씩: 곁날개 만큼.

94) 손그뭏: 손금.

95) 들영 짓은 베: 들어서 지은 베.

96) 드리: 다리(橋).

97) 칼선드리: 심방이 신칼 두개를 세워놓고 다리(橋)모양으로, 칼날 두 개가 모두 위로 향해 놓인 것.

“결 어떻 알아지느니?”

허난,

“오걸랑 집을 먼저 좇앙 갑센<sup>99)</sup> 헨 앞이 세왕 보고 , 집이 강 우리 밥  
출렁 내놓는 거 보민 알아질 도리가 이실거아니파.”

“어서 경 허렌.”

허연. 이젠 벳조판<sup>100)</sup>을 놓안 느리는 건 보난, 아방 어명이 내려가난, 이  
젠 아방이영 안앙들<sup>101)</sup> 울고불고 막 허멍 아들덜 곤는 말이

“어머님아, 어떻허난 어머님은 그전 얼굴이 엇수파?”

“아이고, 말도 말고 일르도 말라. 가멍 하도 멀미 헤놓고 오멍 하도 멀  
미 헤놓고 허난, 나이, 정신도 하나도 엇고, 나 얼굴이 엇다.”

허난.

“경 허우파. 게건<sup>102)</sup> 어머님이랑 앞이 상<sup>103)</sup>, 어머니 이제도록 아바지  
만낭 스실<sup>104)</sup> 애길 다 곶아실<sup>105)</sup> 거난에 앞이 상 글읍서. 우리랑 아바지  
손 심영 가멍 만단정혜(萬端情懷)나 곶으멍 가쿠다.”

허난,

“경 허렌.”

허연. 앞이 사난, 말덴<sup>106)</sup>은 못허고, 집은 몰르고 눈치만 보멍 이 골목드  
레도 주왱주왱 들어가져 저 골목드레도 주왱주왱 들어가져, 이젠 제우제  
우<sup>107)</sup> 집 좇앙 간, 이젠 밥은 허젠 허난 고팡에 강 근쓸 향이카부덴 올앙  
보민 보리쓸 향, 보리쓸 향이카부덴 올앙보민 즈쓸, 즈쓸 향이카부덴 올아  
보민 피쓸, 피쓸이카부덴 올앙보민 근쓸, 막 그냥 선후도착이 된 거라. 겐  
디 제우 좇안 밥은 허연, 상은 출렁 내 놓는 건 보난, 아방 받던 상은 죽  
은아덜, 죽은아덜 받던 건 큰아덜, 큰아덜 받던 건 말젯아덜, 말젯아덜 받  
던 건 셋아덜, 막 그냥 거꾸로 느다<sup>108)</sup>, 밥상을 출려 논 걸 보난, 숟가락  
이영 왔다리 갔다리 헨거라. 게난, 아덜덜 일곱 성제는 벌써 이걸로 봐도  
눈칠 이제 알안, 우리 어명이 아니로구나 헨 걸 알안.

98) 적실헌: 틀림없이 확실하다.

99) 좇앙 갑센: 찾아 가십서.

100) 벳조판: 배에서 보조로 사용하는 판

101) 안앙 들어: 안아서 .

102) 게건: 그러면.

103) 상: 사서.

104) 스실: 사실.

105) 곶아실: 말했을.

106) 말덴: 싫다고

107) 제우제우: 겨우겨우.

108) 거꾸로 느다: 거꾸로 또는 바른 모양을 뜻함.

흐름은 비는 축축하게 오난, 일곱 성제가 친구 벗네 집이 초신 삼는다 놀레<sup>109)</sup> 가 분거라. 겐 놀레 가부난, 노일저데귀일이 딸도 ㄱ만히<sup>110)</sup> 지만<sup>111)</sup> 구들에 낫단 생각을 허난, 아이, 나가 잘못허당 나가 요것들 손에 꼭 나가 죽어짐직을 허난, 나가 먼저 피를 썩 요것들을 죽여불주겐헨. ㄱ만히 누웠단 생각을 허난

“아이고, 베여. 아이고, 베여.”

허멍. 베 아팜 죽어지켄 그냥 구들 니 구석<sup>112)</sup>을 다 땡구는 거라. 겐, 하도 등글어가난, 남선빈 이제 베깃디<sup>113)</sup> 땡기단 제우<sup>114)</sup> 좇아얏언 집드레 들어 산, 아이고, 부인님아, 어디가 아팜 영 허엿어? “

허난,

“베 아팜 죽어지쿠다게.”

허난,

“에, 나 썰어나주저.”

허난,

“아이고, 썰어오고 무시거고, 이거고 저거고 다 설러 땡 요 제 넘고, 저 제 넘영 강 보면, 삼도전 시커리<sup>115)</sup>에 멩텅이<sup>116)</sup> 쓴 점쟁이<sup>117)</sup>가 잇우다. 그디 강 점이나 헤여 뵙 읍서. 무신 동티산디, 어디 걸려사신디사 흔저 강 읍셴.”

허난. 남선빈 각시 곤는 양<sup>118)</sup> 올레로 몽텅이<sup>119)</sup> 짚으고 허연 두들락 두들락 허연 좇안 삼도전 시커리 가는 동안에, 영 창고망으로 보난, 남선비 올레드레<sup>120)</sup> 나가부난 화다닥허게 나완 헛간에 간, 이제 멩텅이 앓아 내언, 울담질<sup>121)</sup> 허영 이 담 넘고, 저 담 넘언 허연 삼도전 시커리에 간 앓은 거 아니. 앓앗단에 남선비 가가난

“아이고, 문점이나 지왕 갑서.”

허난,

---

109) 놀레: 놀러.

110) ㄱ만히: 가만히.

111) 지만: 자기만.

112) 구들 니 구석: 방 네(四) 구석.

113) 베깃디: 밖에.

114) 제우: 겨우.

115) 시커리: 세거릿길.

116) 멩텅이: 망태기.

117) 점쟁이: 점쟁이. 점을 치는 사람의 제주어

118) 곤는 양: 말하는 대로.

119) 몽텅이: 몽둥이.

120) 올레드레: 올레에.

121) 울담질: 울타리를 넘어 다니다.

“아이고, 경 해도 나 점허레 앓우다. 우리 집 안부인양, 거령청허게<sup>122)</sup> 잇단 베가 아팠 둥글없우다<sup>123)</sup>. 계난 영 짚어 봅서.”

허난, 갑자 을축 혈 충도<sup>124)</sup> 몰랑 갑자 을축 병정 뜰축 허멍 이젠 거꾸로 느다 허는 체 허당,

“아들 일곱 성제 납디가?”

허난,

“예. 낱앗우다.”

허난,

“영 곶으민 나신디 육혈 말이우다만은 양, 이 애기덜 일곱 성제 애 내 영 먹어사 부인 병 좋구다.”

허난,

“양! 그거 무신 소리짜?”

허난,

“갑서.”

허멍. 보내분 거라. 올레로 돌아 앓안 어들락 터들락 헌디 몽텅이 짚영 오노렌 허난, 어느 동안 담 튀영<sup>125)</sup> 울담질 허영 완, 헛간에 완 멩텅이 들러 데껴된 구들에 누윙 창 고망으로 영~ 올레드레 보난, 올레로 남선비가 몽텅이 짚영 앓어. 그땐 또,

“아이고, 베여. 아이고, 베여.”

허멍. 막 베아팠 죽어가는 체 헌 거 아니. 완,

“무시거옴 곶읍디가게? 제게 곶읍서.”

허난,

“아 가난이, 아덜덜 애<sup>126)</sup> 내영<sup>127)</sup> 먹으렌 “

“아따가라, 그 놈이 점쟁이 미친놈이 점쟁이 아니짜? 나 속으로 난 애 길 어떻 앨(肝) 내영 먹읍네까?”

허난에,

“아이고, 다시 혼 번만 강 읍서. 다신예, 요 제 넘고 저 제 넘고 강 보민 니커리<sup>128)</sup>에 양 푸는체<sup>129)</sup> 쓴 점쟁이가 잇우다. 그디 강, 혼저 강 읍

---

122) 거령청허게: 난데없이.

123) 둥글없우다: 텅굴고 있습니다.

124) 혈 충도: 할 줄도.

125) 담 튀영: 담 뛰어서.

126) 애: 간(肝).

127) 내영: 내어서.

128) 니커리: 사거리.

서.”

허난, 또 이젠 돌아가는 동안에, 푸는체 헛간에 강 앓아내영 울담 튀영 은에게, 울담질 허영 셋질<sup>130</sup>로 간, 니커리에 앓앗단, 또 가난, 또 아들 일곱 성제 애를 내영 먹으렌 곤는 거라. 겐 남선비 돌아오는 동안에 지는 또 담념영 왕 그거 헛간더레 데껴두영 구들에 누윙 문 고망으로 뵙,

“아이고, 베여. 아이고, 베여. 가난 무시거옌 헛디가?”

허난,

“그디도 가난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영 먹으렌.”

“아이고, 그냥 일은 아니우다. 혼 번만 더 가뵙양, 삼판<sup>131</sup>에 시 번<sup>132</sup>으로, 시 번에, 세 밧디 강 혼말에<sup>133</sup> 지영<sup>134</sup> 흘 수 엇이 나양 아들덜 엘(肝) 내어 줍서. 나가 먹영양 나가, 나 안네쿠다.”

이제 가난, 아닌게 아니라, 또 지가 간 경 곶안<sup>135</sup> 집으로 들어온 거 아 니.

“나양 혼 베에 두 개씩 네 번만 나민 벨리(別利) 체왕<sup>136</sup> 으덥 성제, 벨 리 체와근에게 으덥 성젤 안네쿠덴<sup>137</sup>.”

남선빈, 장도칼 앓아 내언 벧남석<sup>138</sup>에 간, 칼을 슬금슬금, 슬그랑 슬그 랑 시릉 시릉허멍 허노렌 허난, 동네에 청토산이 할망은 불망굴<sup>139</sup>이나 잇이민 빌어당 식은 밥에 물즙이<sup>140</sup>라도 데왕 먹어보카 허연에 오단 보 난, 남선비가 칼을 내뵙 갈았어.

“남선비 생완(生員), 무신거 허젠 칼 곶았수가<sup>141</sup>?”

허난,

“아이고, 우리 집이 안부인 아판양, 막 죽게 뵤언 세 밧디<sup>142</sup> 간, 점 허 난양, 저 아들들 일곱 성제 애(肝) 내영 먹어사 신병 조켄 허난, 애(肝) 내 져<sup>143</sup> 장도칼을 갈았습주.”

---

129) 푸는체: 키..

130) 셋질: 지름길.

131) 삼 판: 세번째의 .

132) 시 번: 세 번.

133) 혼말에: 한말에.

134) 지영: 져서.

135) 경 곶안: 그렇게 말해서.

136) 체왕: 채워서.

137) 안네쿠덴: 안내겠습니다.

138) 벧남석: 양지바른 곳.

139) 불망굴: 불 붙고 있는 나무가 아주 타서 숯불과 같이 벌겍게 된 것.

140) 물즙이: 밥을 물이나 국에 만 것.

141) 곶았수가: 갈고 있습니까.

142) 세 밧디: 세 곳을.

허난, 아이고, 그때 활망이 불망굴 빌레<sup>144</sup>) 오랏단 다 데껴뵈 이 아덜덜 어디 가시고 좃단 보난, 아들들은 아무 분시<sup>145</sup>) 몰르게 강 막 웃음벨탁<sup>146</sup>) 들 허명 친구 벗덜이영 초신덜 삼으멍 노는 거라.

“게난, 아이고, 야이들아, 너네들 어느 염치(廉恥)로 웃을 생각이 났이니? 흔저 니네 집이 강 보라. 느네이, 죽은어명이 아판 다 죽어간, 점인가 어딘가 허난에 느네들 애 내영 먹어사 병 존덴 허난, 느네 아방, 느네 애(肝) 내젠 칼 곶았어라<sup>147</sup>).”

허난, 그때 삼형제가 비세(悲鳥)골이 울멍덜 올레에 왕 산 거라. 샷단, 죽은 아시, 막둥이가, 녹디생이가 근는 말이,

“성님네야, 이디 사십서. 내가 들어강 무신 핑계를 헤여도 칼을 빼영 오쿠다.”

죽은 게 들어가명,

“아바지, 무신 거 헤엿수파<sup>148</sup>)?”

“아이고, 니네 어멍 아판 죽을 스경(死境)이 뵈난, 점허난 느네들 애(肝) 내영 멕이렌<sup>149</sup>) 헤영 애 내젠 칼 곶았저.”

“아바지, 춤 잘 했우다. 즈식은 또 죽어불민, 나민 즈식이고, 어멍은 죽어불민 또시 얻기 전인 어멍이 엇수게. 겐디, 아바지, 생각헤영 봅서. 우리 애(肝) 내는 건 좋수다만은, 아바지 즈식, 아바지가 우리 애(肝) 내젠 허른 아들 하나에 흔 번씩만 가슴 아파도 일곱 번을 가슴 아프고, 애(肝) 내어놓앙 우리 그냥 내불지 못허영 어디강 흑이라도 흔 곶체<sup>150</sup>) 덕영<sup>151</sup>) 문젠 허민, 아바지 어둑운 눈에 몸도 불편헌디, 이제 아바지 못 건디꼭 험니다. 그 칼을 날 줍서. 나가 앓앙 강양, 형님네랑 나가 애(肝) 내영 오크메, 나 하나만 아바지 손으로 애 내민 가슴도 흔 번만 아프고 흑도 흔 곶체만 덕으민 아바지 편안헿 좋을거 아니파.”

허난, 아, 그 말도 들언 보난 맞아 뵈난,

“경 허렌.”

칼을 준 거라. 에이그, 게난 그 칼 앓안 일곱 성제가 올레에 간 만난 비

143) 애 내젠: 간 꺼내려고.

144) 빌레: 빌러.

145) 분시: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이나 슬기. 분수.

146) 웃음벨탁: 유쾌하게 깔깔 지껄이며 즐김.

147) 곶았어라: 말하고 있더라.

148) 헤엿수파: 하고 있습니까.

149) 멕이렌: 먹이라고.

150) 곶체: 삼태기.

151) 덕영: 덮어서.

세(悲鳥)같이 울멍 어디레 가민 조코. 막 가는게 굴미굴산 노조방산 에야 산을 막 올라산 거라. 산더레 그자 막 올라 간, 산에 간 미여지 뵙뒤<sup>152)</sup> 시난, 막 울멍

“설운 어머님아, 어머님은 어디 가고, 이거 어뎡헌 일이쨌?”

우노렌 허단, 무정 눈에 즘이 소로록허게 온 거 아니. 일곱 성제가 누윙 자는디 어머님이 꿈에 시꾸완<sup>153)</sup>

“아이고, 설운 애기덜아, 어디 완 누윈 잠디 흔저 일어들나렌.”

허연. 시꾸난 와들랭이<sup>154)</sup> 일어난 보난 꿈이라. 아이고, 이거 피라곡절(必有曲折) 허다. 어머님이 시꾸완 우리ㄴ라 일어나렌 허연, 경 허연 영 앓앓이난, 산노리<sup>155)</sup> 하나가 툃락툃락 튀멍 느려 오는 거라. 이제 그 노리를 심영 죽영 앓앙 가젠 죽이젠 허난

“아이고, 난 산신대왕 산신백관인디, 날랑 살령 보내고 나 조름<sup>156)</sup>에 곧 산툃<sup>157)</sup> 일곱 ㄴ리가 오랏이메, 에미랑 씨전중(-傳種)으로 놓아 두고 새끼 으섯이랑 애(肝)내영 갑서.”

허난,

“너, 거짓말 아니냐?”

허난,

“아이, 정말이우다.”

“거짓말이민 너 심영 죽여불켌.”

허연. 저고리 앞섭<sup>158)</sup> 박허게 브령 춤 블랑<sup>159)</sup> 똥고망에 탁허게 부쳐서. 겐 그 법으로 노리꽁지<sup>160)</sup>는 히는 법이우텐 허영 칫영 부찌부난<sup>161)</sup>, 히는 법이고. 겐 아닌게 아니라 노린 보내뵙<sup>162)</sup> 잇이난, 산툃 일곱 ㄴ리가 내려 오는 거 아니. 겐 에미는 씨전중(-傳種)으로 보내어 두고, 새끼 으섯은 가 죽 뵙겨 놓고 허연 잡안, 질로 죽은<sup>163)</sup> 죽은 멥게낭<sup>164)</sup> 잇이난, 이령이령 슷불 피와 놓고, 궤기들은 일곱 성제가 모여앗안, 익엇이나 흔 점, 설엇이

152) 미여지 뵙뒤: 아무 거침없이 탁 트인 널따란 별판.

153) 시꾸완: 꿈에 나타나서.

154) 와들랭이: 급히 벌떡 일어나는 모양.

155) 산노리: 산노루.

156) 조름: 꿈무니.

157) 산툃: 산돼지.

158) 앞 섭: 옷의 앞자락.

159) 춤 블랑: 춤 발라서

160) 노리꽁지: 노루꽁지.

161) 칫영 부찌부난: 찢어서 붙여버려서.

162) 보내뵙: 보내놓고.

163) 저절로 죽은

164) 멥게낭: 청미래덩굴.

냐 흥 점, 구워가명 맛봐가명 먹는 게 다 먹어붙고, 애(肝) 으섯 개만 남은 거라. 애(肝) 으섯 개 들런 집으로 내려오단, 이제 막둥이 곧는 말이,

“성님네야, 성네랑 좌우 팔방에 다 벌어지영 잇입서. 나만 들어가커메. 나가 들어강 어뎡 큰 소리가 나건, 돌맹이 들은 이, 막데기 들은 이, 활 들은 이, 창 들은 이, 그때랑 와르르 놀려 덥서.”

이젠 해된. 이녀 혼자만 들어간

“어머님, 성님들 애 내영 오랏우다.”

“아이고, 경 헛이나.”

경 허명 구들에 간 보난, 누웠이난에<sup>165)</sup>, 머리말에 강 앓은 거주게. 앓으  
난

“아이고, 중병 든 사름은이 약 먹는디 아니 본다. 나가 불라.”

허난, 베끼디레 나오명 손고락<sup>166)</sup>에 춤 불란 창고망을 뜯라된<sup>167)</sup>, 영 나  
완 베끼디 나완 창고망으로 영 곱안 보난에, 사름 애(肝)엔 허난에 겁난  
생이라. 입술에 콧바위에만 불긋불긋헌 거 묻혀뎡 그자 자리 알더레 술술  
다 물어 놓는 거라. 게난, 경 물어된.

“아이고, 하나만 더 먹엇이민 가슴에 몽클락헌 거<sup>168)</sup> 문짜<sup>169)</sup> 느려가키  
여게.”

허명 해가난, 게난, 녹두생이가 문을 활 올안 들어간

“어머니, 경 허민양, 나 이제 죽을 거난, 마주막<sup>170)</sup>으로 영 험서. 어머  
님 머리에 니<sup>171)</sup>나 이 흥번만 잡아뎡 나 죽으쿠다.”

“아이고, 중병 든 사름이, 머리에 니 아니 잡나.”

“어머니, 경 허민 영 험서. 어머님 눅는 자리나 흥번만 나가 싹허게 청  
소해뎡근에게<sup>172)</sup> 죽으쿠다. 닭아근에 죽으쿠다.”

허난,

“중병 든 사름 눅는 자리 아니 치운다.”

그땐 그냥 부에가 풋죽 곶이 난<sup>173)</sup> 거라. 허운데기<sup>174)</sup> 심언 밧자리더

165) 누웠 이난에: 누워 있으니.

166) 손고락: 손가락.

167) 뜯라된: 뚫어두고.

168) 몽클락한 거: 물렁하고 듩직한 것.

169) 문짜: 하나도 남김없이.

170) 마주막: 마지막.

171) 니: 이(蝨).

172) 청소해 뎡근에게: 청소해 두고서.

173) 부에가 풋죽 곶이: 팔죽이 끓듯 몹시 화가 난.

174) 허운데기: 머리카락을 낮추어 부르는 말.



레<sup>175</sup>) 둘러메영 탁 쳐뵈링 자리 확허게 견영 보난, 애 으섯 개 잇인 거 아  
니. 흔 착 손에 세 개씩 들런 지봉상상<sup>176</sup>) 조치<sup>177</sup>) 올라산,

“이 동네에 다심어명<sup>178</sup>) 허영 사는 애기덜, 다심애기<sup>179</sup>) 들양 사는 애  
기덜 우리 보양 정다십센<sup>180</sup>). 성님께 살앗 건 몸천<sup>181</sup>)으로 놀려들고<sup>182</sup>),  
죽엇 걸랑 혼정(魂情)으로 놀려듭센.”

와르르 허게시리<sup>183</sup>) 돌멩이 들은 이, 막땡이 들은 이, 창 들은 이, 활 들  
은 이, 놀려들언 보난, 아바지도 엇고 노일저데귀일도 엇인 거라. 좃단 보  
난, 노일저덴 그냥 살떠레<sup>184</sup>) 부뜨젠<sup>185</sup>) 구들에게, 벅장(壁穢), 그 작박 곁  
은<sup>186</sup>) 손콍으로 벅장(壁穢) 허우튼언<sup>187</sup>) 나가난 벤소백이<sup>188</sup>) 엇인 거라. 게  
난 더 들을 디<sup>189</sup>) 엇이난 칙간<sup>190</sup>)에 간 쉬은대자(五十五尺) 머리로 목 메  
언 지렁이<sup>191</sup>) 죽영 잇엇고, 아바진 좃단 보난, 아바진 큰 소리들 나가난  
올레드레 들으민 살아지카부덴 올레드레 가단 정살<sup>192</sup>)에 간, 발 걸런 넘  
어진 게 그냥 그디서, 올레서 죽은 거라. 게난, 이제 이 포마실<sup>193</sup>), 어평허  
연 우리가 푸지건히<sup>194</sup>) 포마시 허린.

이젠, 벳 듯듯 난<sup>195</sup>) 디레 노일저데귀일이 뜰 곳어다 난. 머리는 박박  
끓어단 저 바당더레 앗앙 데껴부난 저 멘산<sup>196</sup>)이여 툴이여 감테여 문딱  
마련을 허고, 눈은 들좌단<sup>197</sup>) 천리통 망안경으로 설립을 허고, 귀는 끓어  
단 이제, 무신 무전기여 전화기여 설련허고<sup>198</sup>), 코는 들좌단 침통으로 멘

---

175) 밧자리 더레: 방의 바깥 목에.

176) 지봉상상: 지봉 위.

177) 조치<sup>177</sup>): 상마루 맨 위 꼭대기.

178) 다심어명: 의붓어머니.

179) 다심애기: 의붓자식.

180) 정 다십센: 정 다스리라고.

181) 몸천: 몸 형제.

182) 놀려들고: 날라들고.

183) 허게시리: 하계꿈.

184) 살 떠레: 살 방편으로.

185) 부뜨젠: 붙으려고.

186) 작박 곁은: 주걱 같은.

187) 허우튼언: 굽어뜯어.

188) 벤소백이: 변소밖에.

189) 들을 디: 달릴 곳.

190) 칙간: 변소.

191) 지렁이: 길게 늘어져서 있는 모양

192) 정살: 정낭.

193) 포마실: 원한 갚음을.

194) 푸지건히: 통쾌하게.

195) 벳 듯듯 난: 별 따뜻하게 난.

196) 멘산: 해초의 일종.

197) 들좌단: 도려내어서.

198) 설련허고: 마련허고.

들고, 입은 들뢰단 마이크 멘들고, 니빨은 빠단 바당에 대우살, 대우살도 마련허고, 손은 끊어단 글쟁이<sup>199</sup>)로 쓰고, 발은 끊어단 곰베<sup>200</sup>)로 쓰고, 젓은 들뢰단 가지쟁이<sup>201</sup>)도 쓰고, 바당에 가른 해삼으로도 셋텐 허고, 베포롱<sup>202</sup>)은 들뢰단 보말, 수두리 보말인가 경 해연 보말로 마련허고, 베는 들뢰단 물이슬, 요즘 말론 해파리, 그거 마련허고, 이제 똥꼬망은 들뢰단 들문주리로 설런 허영, 강 몰랑 아기덜 갖당 가운데 꼭 녹돌민<sup>203</sup>) 물 짹허게 골겨블고 경 허영 들문주리<sup>204</sup>) 허고, 이젠 배설은 끊어단 쉐앗베<sup>205</sup>)도 설런헛텐 허고, 손톱 발톱은 빠단 굼붓<sup>206</sup>), 바당에 가민, 굼붓도 설런허고, 이젠 남선비 좋아하던 어느 세계 물건은 끊어단 저 바당에 데껴부난 대전복이여 소전복이여 이제 마련허고, 허단 남은 건 굴묵낭 방에에 난 독독허게 못안<sup>207</sup>) 폭풍브름 불러부난 모기 극다기 몸이 똬젼 허고,

이제 이년은 포마시 이만 허난, 아멩 우리 어멍을 좇아봐사 뉘켄. 이젠 지네 짓어 논 베 잇이난, 아방도 탕 가고 헌 베 잇이난, 그 베 탄.

“멩천(明天)ㄱ똥 하늘님아, 우리 어머님 좇젠 헛이메<sup>208</sup>), 이 바당을, 우리 어머님신디레 우리를 인도를 헤 줍서.”

허난.

“지도를 헤 줍서.”

겐 가는 건 보난, 오동나라 오동ㄱ을 간 부찐 거라. 겐 내령, 그냥 이레 저레 땡기멍 “어머니, 어디잇우까? 어머님, 혼정(魂情) 잇건 우리들 눈에 펜식<sup>209</sup>)허영 아무겔로나 나타납센.”

중얼중얼 허멍 막 헛인디, 주천강 연훼못덜 넘어갈 때엔 아무것도 엇어 신디 넘어올 땐 보난 연꽃이 핀 거라. 야, 이거 피라곡절(必有曲折)허덴, 이젠 그 물을 푸당 봐도<sup>210</sup>) 갑돌고, 푸당 봐도 갑돌고 물이 붓뜨질<sup>211</sup>) 못허는 거라. 게난 녹디생이가,

“멩천(明天)ㄱ똥 하늘님아, 이 물이나 붓뜨게 시겨 줍센.”

199) 글쟁이: 갈퀴.

200) 곰베: 곰방메.

201) 가지쟁이: 개지. 늦그릇의 뚜껑.

202) 베포롱: 배꼽.

203) 녹돌민: 누르면.

204) 들문주리: 말미잘.

205) 쉐앗베: 마소에 집을 실을 적에 동여매는 조금 굼직하고 기다란 참 바.

206) 굼붓(뱃): 딱지 조개의 일종.

207) 못안: 찢어서.

208) 좇젠 헛이메: 찾으려고 하니까.

209) 펜식: 헛 것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다.

210) 푸당 봐도: 퍼 봐도.

211) 붓뜨질: 줄어들지

헨 축원헤 된. 송악낭 막데기로 연시번 착착 후리난, 물이 브쩍허게<sup>212)</sup> 싸. 아이고, 보난, 어머니은 물 아레서 죽언 슬은 다 시내방천에 흘러블고, 뼈만 슬그랑허게<sup>213)</sup> 남은 거 아니. 경 허난, 서천꽃밭디 녹디생이가 놀러들언, 피 오를 꽃, 슬 오를 꽃, 말 ㄱ를 꽃, 오장육부 생길 꽃, 사름 생길 꽃, 문딱<sup>214)</sup> 꽃을 똑똑허게 꺾어부난, 서천꽃밭디 강 놀러들영, 그것도 천천히 꺾엇이민 혈걸. 제기 지네 어명만 살릴 예산허영<sup>215)</sup> 막 텅기명 와닥와닥 꺾어부난 꽃끼리 부닥친 거라. 게난, 서천꽃밭디 화강(火光)이 중천헛구나<sup>216)</sup>. 만약, 새 집 짓영 강 문전본 풀 때엔, 성주풀이 갈 때는 서천꽃밭디 이젠 서로 막 부딪쳐부난 화강이 중천허연 서천꽃밭디 불이여영 허고, 경 안헌 디는 그냥 혈 때는 본풀이를 그냥 허는디, 경 허영 꽃을 꺾언 난. 이제 차례차례대로 어머니신디 놓안.

“어머님아, 이 때는 어머님 때리는 매가 아니고, 어머님 살리기 위해서 어머님안테 불효자식 매 놓았우덴.”

연시 번을 후리난, 와들랭이 일어나명,

“아이고, 봄 즈이난 너무 자지엇저.”

허명 와들랭이 일어난 거라. 이젠 어머님을 돌아왔언 고향으로 온 거 아니.

“어머님, 흔저 그릅서. 게나저나 물 아레 누원 고생 하영 헛우덴.”

젠 돌안 완. 어머니는 물쏘곶에<sup>217)</sup> 살아나부난, 조왕할망으로 앓안, 옛날엔 게나제나 불 숲안게 물 흔직 데우젠<sup>218)</sup> 헤도 불 숲양 데웁곡, 모든 걸 하루 세 번 밥헛도 불 숲양만 허고 허난에, 하루 삼시 번 불화식 허걸랑 듯듯허게<sup>219)</sup> 앓양 불도 초곡 조왕할망으로 들어 앓읍서. “

허연 헤된. 이제랑 범지범이나 마련해보젠,

“아바진 올레서 죽어부난 올레지기<sup>220)</sup> 정살주목(柱木) 네롱지기<sup>221)</sup>로 직헛서.”

212) 브쩍허게: 물기나 습기가 잦아 없어진 꼴.

213) 슬그랑허게: 몸 형체가 없고 뼈만 남아 있는 상태.

214) 문딱: 전부. 모두.

215) 예산허영: 생각해서.

216) 화강(火光)이 중천 헛구나: 서천꽃밭의 꽃들을 꺾는 과정에서 꽃들이 서로 마주쳐 닿거나 부딪치는 모양을 불이 난 것으로 표현.

217) 물 쏘곶에: 물 속에.

218) 데우젠: 데우려고.

219) 듯듯허게: 따뜻하게.

220) 올레지기: 올레를 지키는.

221) 정살주목 네롱지기: ‘올레’ 어귀에 ‘정살’을 꿰어 걸치도록 구멍을 파 세워 놓은 주목(柱木)과 정살의 신.

허고, 계난 그 집이 식구들이 문밖 이 집 안넬<sup>222)</sup> 츠지헝<sup>223)</sup> 잇인 거라. 어머니랑 조왕할망<sup>224)</sup>으로 앓읍서 허고, 노일저데귀일이 딸은 벤소<sup>225)</sup>에서 죽어부난 벤소지기로 앓앙, 계난, 벤소허고 조왕은 두 씨앗<sup>226)</sup>이라부난, 조왕엇거 벤소에 못가고, 벤소엇거 조왕에 못오고, 예를 들엉 조왕엇거 벤소 간거는 경, 저, 벤소엇거 예를들어 조왕에 온거는 경 뭐안헌디, 조왕엇거 들렁 벤소에 가민 급헌 동티(動土) 불러주영, 노일저데귀일이 딸이 시알허영<sup>227)</sup> 경 허영 사름 죽는 법.

이젠 큰아들은 어덜로 가쿠젠 허난, 젤 큰아들은 동이 청대장군, 두 번째 아들은 서이 백대장군, 세 번째 아들은 남이 적대장군, 네 번째는 북이 흑대장군, 아, 저, 제일 큰아덜은 상성주(上成造), 두 번째는 중성주(中成造), 세 번째는 하성주(下成造), 네 번째는 동이 청대장군, 다섯 번째는 서이 백대장군, 으섯 째는 남이 적대장군, 계난 아들 하나만 더 잇엇이민, 동서남북을 막고 트고 헌 거를 안헐 거주게. 안헐 건디 죽은아들 그레 앓으렌<sup>228)</sup> 허난 죽은

“난, 마우다<sup>229)</sup>. 난 일문전 하르방으로 들어앓으쿠다.”

허연. 헤부난<sup>230)</sup>, 아들 하나가 엇어부난, 예를들어 올리는 이거 정유년이 난 동이 막고, 새헬 뉘민 꺼꿀로<sup>231)</sup> 도는 거라. 새헬 뉘민 북이 막아. 그 삼형제가 안 앓은 디는 막는 거. 이제 또 새헬 나민 서가 막고, 경 허명 츠지 안헌 딘 막는 거고, 츠지 헌 딘 아니 막는 거고, 경 허난 헤우년<sup>232)</sup> 도 꺼꿀로 거, 삼살방(-煞方)은 꺼꿀로 도는 법이고, 그 법으로, 옛날, 지금이야 집이서 떡 안헬주 만은<sup>233)</sup> 옛날엔 석 덜 그믐날엔 정월 초하루 멩질 허젠 허믈 떡을 치주게. 겐, 정지<sup>234)</sup>에서 시리떡<sup>235)</sup>을 치민, 그 시리가 오골렉이<sup>236)</sup> 잘 익으면 일 년 열두 덜 집안이 편안허고, 시리떡을 치어도

222) 집 안넬: 집 안에를.

223) 츠지헝: 차지해서.

224) 조왕할망: 부역의 신.

225) 벤소: 변소.

226) 씨앗: 시앗. 남편의 처 또는 첩.

227) 시알허영: 시샘해서.

228) 앓으렌: 앓으라고

229) 마우다: 싫습니다.

230) 헤부난: 해버려서.

231) 꺼꿀로: 거꾸로.

232) 헤우년: 그 해만이 가진 자연이 주는 환경이나 특성을 일컫는 말.

233) 안헬주 만은: 하고 있지 않지만은.

234) 정지: 부역.

235) 시리떡: 침떡.

236) 오골렉이: 고스란히.

잘 안치나 어떻허민 집안이 흐뭇 즈든덴<sup>237)</sup> 허고, 시리 치어근에게 탁 얹어 놓앙,

그 말 안 곱아쨌구나<sup>238)</sup>. 그 어멍 들앙올 때에 어멍 누워난 자리를, 어멍 어멍 누워난 자리를 내불리엔 그 어멍 누워난 자리를 막 뒤지단보난, 그릇이 동골락허게<sup>239)</sup> 뉘난, 얹어놓안 으섯 성제(兄弟)가 문딱 주먹으로 박아불어신디 일곱 번쨌 완 보난, 박을 데가 엇어 쨌 가운데 팡허게시리<sup>240)</sup> 박으난, 시리고망 일곱 개를 마련 허난, 그 시루고망 일곱 개 헌 것에서, 떡을 치민 녹디생이가 쨌 가운데 걸<sup>241)</sup> 박아부난, 쨌 가운데 걸 칼로나 무시 걸로<sup>242)</sup> 영 순고락이라도 영 딸랑 지붕상상 즈치므루 문전(門前) 우이로 허영 데껴근에게<sup>243)</sup> 허고, 경 허는 법, 문전본(門前本) 다 풀엇 습니다.

---

237) 즈든덴: 걱정한다고.

238) 곱아쨌구나: 말해주었구나.

239) 동골락허게: 동그랄게.

240) 팡허게시리: 팡하게끔

241) 가운데 걸: 가운데 것을.

242) 무시걸로: 무엇으로.

243) 데껴근에게: 던져서.